

## 2) 용 기

용기는 일반적으로 독·독아지·항아리 등으로 불리는 생활용기이다. 용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기질 용기로서, 발효식품과 곡물 등을 저장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즉 용기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세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활용품의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현대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플라스틱 용기의 급속한 보급, 주거공간의 변모,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용기의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용기가 일상용품으로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순천에서 용기를 굽는 용기점은 해룡과 낙안 등지에 남아 있다. 금당고등학교 뒷마을의 용기점들은 얼마 전 모두 폐점되고 그 일대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해룡면 상삼리 54-8번지에서 용기점을 하고 있는 최대량은 3대째 가업으로 하고 있다. 이 용기점은 250년 전부터 이어져온 전통 깊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가마는 20여 년 전에 연결식 등요로 개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0평 규모의 제형실, 30평 규모의 건조실 3곳, 50평 규모의 성형실이 있다. 용기점의 전체 구도를 보면 가운데 마당을 향하여 제형실, 건조실, 성형실, 건조실, 건조실, 수비장, 가마의 순으로 빙 둘러 위치한 모습이다.